

# 역사와 설화를 현실에 되살린 흥미로운 고전

##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조운찬 · 민족문화추진회 교정위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 고전의 사전적 의미다. 그러나 이런 고전의 가치가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독서 습관을 갖지 못한 독자의 탓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지만은 않는 고전의 난해함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고전은 여전히 ‘읽어야 할 책’일 뿐 ‘읽히는 책’이 되지 못한다.

### ‘읽히는’ 고전으로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는 ‘읽어야 하는’ 당위(Sollen)를 ‘읽히는’ 현실(Sein)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다. 물론 이런 노력은 예전에도 있었다. 지금까지 나온 《삼국유사》에 대한 해설서, 논문, 현장 기행문, 종교생을 위한 다이제스트본 등은 고전에 다가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이라. 장르를 달리해 《삼국유사》를 풀어 나간 글도 적지 않다. 시인 서정주는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에서 우리나라의 고대설화를 훌륭한 시편으로 승화시켰으며, 화가 이만익은 삼국의 ‘남겨진 일들’[遺事]을 연작 형식의 그림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또 조성기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은 《삼국유사》의 소재를 소설로 풀어가기도 했다.

《삼국유사》에 담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풀어쓴 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같은 정보라도 그 정보를 그와 같이 구

### 《사진과 함께...》는 고전을

직접 읽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출판사의 배려가 돋보이는

책이다. 먼저 이 책은 1960년 북한에서

출간된 리상호 역주본을 저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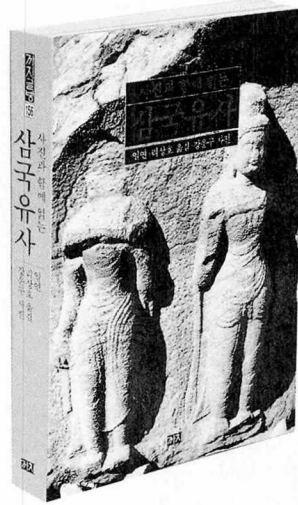
삼았다. 대개 북한의 고전 번역은 쉽게

풀어써 일반인이 읽기에 적합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현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저자의 탐색 및 노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고전을 직접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삼국유사》의 해설서나 다이제스트본이 삼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 그리고 저자 일연의 사유방식을 어찌 전해 줄 수 있겠는가. 고전 읽기의 의의와 원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진과 함께...》는 고전을 직접 읽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출판사의 배려가 돋보이는 책이다. 먼저 이 책은 1960년 북한에서 출간된 리상호 역주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대개 북한의 고전 번역은 쉽게 풀어써 일반인이 읽기에 적합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리상호 역주본 역시 남한에서 출간된 《삼국유사》 역주본에 비해 잘 읽힌다. 특히 남한의 번역이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데 비중을 두다소 딱딱하다면, 북한의 번역은 문학적 서사



일연 저음 · 리상호 옮김 · 강운구 사진 · 조운찬 교열.

의 측면을 부각시켜 흥미롭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장에 운율을 살리고 어려운 한자 용어를 풀어써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지식 없이도 술술 읽어 갈 수 있다.

### 문학적 서사 부각시켜

비슷한 시기에 번역이 이뤄진 남한의 이병도 역주본과 북한의 리상호 역주본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단군 신화와 관련된 일부분이다.

“웅(雄)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神市)라 이르니 이가 환웅대왕(桓雄大王)이란 이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善), 악(惡) 등 무릇 인간의 삼백육십 여사(三百六十餘事)를 맡아서 인세(人世)에 있어 다스리고 교화하였다.”(이병도 번역)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여기를 신시(神市)라고 이르니 이가 환웅 천왕(天王)이다. 그는 바람 맡은 어른, 비 맡은 어른, 구름 맡은 어른을 거느리고 농사,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살이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살면서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다.”(리상호 번역)

바람 맡은 어른[風伯], 비 맡은 어른[雨師], 구름 맡은 어른[雲師]이란 표현이 다소 낯설지만 한글 세대에게는 오히려 더 와닿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이처럼 리상호 역주본에는 순우리말이 자주 보인다. ‘청처짐하다’, ‘모꼬지’, ‘돌땀땀’ 등의 어휘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책의 또다른 미덕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진

이다. 작품집 《경주 남산》(열화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진 사진작가 강운구씨는 지난 4년 동안 《삼국유사》의 현장을 살살이 뒤지며 역사를 현실로, 설화를 사실로 되살려 놓았다. 흔히 《삼국유사》는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의 성격이 강해 현실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에 실려 있는 사진을 보면 《삼국유사》의 내용이 엄연히 현실을 토대로 씌어진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강씨는 리상호 역주본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서 출간된 여러 종의 《삼국유사》 번역본을 읽으며 역사의 현장을 앵글에 담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기존의 번역본이 지명을 잘못 비정(比定)한 곳을 바로잡기도 했다. 이를테면 ‘진덕여왕’조에 나오는 금강산(金剛山)을 국내의 모든 번역본은 경북 영천이라고 잘못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현장 답사를 통해 이 산이 경주시 동천동에 있다고 밝힌 뒤, 금강산에서 내려다 본 경주시까지의 전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의 노력으로, 경주 김씨 시조의 신화가 깃들여 있는 시림(始林), 선덕여왕이 병사를 매복시켜 적군을 물리쳤다는 여근곡(女根谷), 비형랑이 귀신들과 함께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는 황천(荒川) 등에 얽힌 이야기가 아름다운 사진으로 옮겨졌다. 이 책에는 100여장에 달하는 천연색 사진이 실려 있으며, 사진만으로도 《삼국유사》의 분위기를 보고 느낄 수 있다.

### 현실을 토대로 한 역사

북한의 번역과 남한의 사진이 함께 만든 어낸 현대판 《삼국유사》. 이 책의 교열을 본 필자는 이처럼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 천리마 꼬리에 올라탄 파리와 같은 영광이라고 할까. 두 분의 공력에 비하면 미미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문장을 다듬고 오역이나 의미가 불명확한 곳은 국내외의 번역본과 원문을 참고해 수정했다. 번역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저어되기도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전 《삼국유사》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 ◆

까지/A5신/464면/20,000원

### 표지 이야기

## 아직도 그윽한 삼국유사의 현장

사진작가 강운구씨가 4년간 꼼꼼히 재현

“천년이라는 세월, 그 아득해 보이는 시간도 감히 말하자면 별것 아닌 것 같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황당한 허구 같은 이야기, 그 신화마다에는 그러나 거의 그곳이 어디라는 지명이 나온다. 그 지명을 묻고 물어서 찾아가보면 그곳은 실제로 있었다! 그곳에 있는 석물들이나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형들을 보면 천년 세월이 남긴 흔적이란 그리 뚜렷하지 않은 수가 많았다. 말하자면 천년 세월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백년도 못 되는 일생이 별것 아니라 하는 것을 그곳들은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화의 현장에서 파괴된 구조물들이나 알 아볼 수 없도록 뒤죽박죽이 된 지형들은 거개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별것 아닌 기간 동안 머물다 갈 뿐인 못난 사람들의 짓이었다. 그러나 그 폐허가 된 신화의 현장에는 《삼국유사》에 요목조목 씌어 있는 여러 자잘한 구조물들의 잔해들이 부서진 채로라도 남아 있는 수가 많았다. 그런 것을 감동 없이 바라보기란 쉽지가 않았다.”본문의 《사진을 마치고》중에서.

